

# 미국 공교육의 형성과 전개\*

## -식민 시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이 성 호

〈한림대학교 교육학과〉

### I. 머릿글

교육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의 하나는 특정한 사회의 문화적 전수 및 발전에 있다. 즉, 교육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적 전통이 계승되고 고양되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 혹은 제도화된 학교 교육(formal education; schooling)은 그 성격상 매우 체계적이고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지적 흐름을 이해함에 있어 그에 대한 고찰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국가 탄생 이전의 식민 시기(colonial period)부터 완전한 국가로서의 조직과 틀을 정비하고, 산업 발달을 기반으로 하여 축적한 막대한 양의 부를 토대로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다지게 되는 1차 세계대전까지의(1607-1918) 미국의 공교육을 조명하는 데 있다. 한가지 밝혀둘 점은 이상의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교육 실태나 제도 등에 관한 언급은 가능한 한 피하고 주로 교육의 추이나 이념, 그리고 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세 시기로 나누어 서술되고 있는데, 첫째는 Virginia정착(1607)부터 독립 선언(1776)까지이고, 둘째는 독립 선언 시기부터 남북전쟁(1865)까지이며, 셋째는 남북전쟁 종전부터 1차세계대전 종전(1918)까지이다. 각 시기별로 다루어질 내용 또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고, 다음은 각 시기별로 존재했던 사상과 문화 등 교육에 대한상이한 배경 이념(background ideas)이며, 마지막은 시기별 교육의 목적 및 추이이다.

이 글의 전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공교육 체제는 그 어떤 시기에도 단일한 이념이나 견해에 의해 지배된 적이 없다. 미국 사회 자체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과 같이 미국의 학교 교육의 흐름은 상이한 가치관이나 사회적 힘의 대립과 갈등 또는 공존과 조정의 과정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는 미국 사회의 복합성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주안점을 사건의 연대기적 나열보다는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제반 이념이나 사조의 역동적 관계에 두고자 한다.

## Ⅱ. 식민 시기

### 1. 사회적 상황

식민 시기, 특히 17세기 말까지의 미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문화적 요소들이 혼합된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영어 사용자들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영국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Curti, 3). 즉, 영국의 사회 제도나 이념(ideas)이 식민지 생활 전반을 지배했던 것이다. 한 예로, 정치 제도 면에서 당시 식민지(미국)는 왕권의 전횡을 규제하는 영국식의 대표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미국 정치 제도의 역사적 기초는 시민의 자유를 토대로 하는 대표 민주주의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독립 운동 시기를 통하여 왕권은 물론 영국 의회의 권위까지 부정하게 되는 이 대표 정부 체제가 이후 미국에서는 한 발자국의 퇴보 없이 계속 유지·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인 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적 독립은 물론 문화적, 그리고 교육적 독립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Butts & Cremin, 5).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는 계급 구분이 명백한 불평등 사회였다. 유럽의 경우와는 약간 달리, 대규모의 토지를 부여받은 귀족이나 고위의 성직자는 없었으나,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경제적 계급의 구분이 엄격했고 그 격차 또한 컸다. 물론 미국의 경우 중간 계급의 숫자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사회 이동 역시 상대적으로 용이했지만, 참정권과 공직이 유산 계급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상류 계급에 의해 독점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은 대체로 이러한 계급 구조를 영속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MacMillan, 6).

끝으로, 교육과 직결된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종교의 자유라 함은 종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기독교 교파의 선택을 뜻하는 것이다(Butts & Cremin, 29). 교파 선택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정교 분리의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활기를 띠는데, 이같은 현상이 당시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 2. 배경 이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 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교육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나 이론의 공존과 경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식민 시기 역시 이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으나,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관이 이 시기의 대부분을 지배한 교육의 원리였음도 부

인할 수 없다. 식민 시기 초기에 유럽 이주민들에 의해 전파된 기독교적 전통은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당시 미국 사회의 지적 발달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나아가 이는 인종이나 거주 지역 또는 사회 계급을 초월하여 당시 사회를 통합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였다(Curti, 50).

여기서 전통 기독교 교육관이란 곧 Calvinism을 지칭한다. 이에 따르면 아동은 본성상 악한 존재이며, 따라서 교육이란 훈육을 통해 인간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맹종케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권위가 성인에게 부여되며, 교육의 방법은 엄격한 단련과 벌로 대표된다.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은 경건한 신앙인을 기르는 데 있으며, 교육의 내용은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종교상의 진리(기독교 교리)인 바,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은 허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다 심화된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Butts & Cremin, 66).

이상과 같은 기독교적 경건성(piety)과 더불어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을 지배했던 또 다른 두 가지의 가치는 교양인으로서의 성품(civility)과 학식인(learned man)이었다(Cremin b, 192). 교양인으로서의 성품이란 사회 지도자로서의 고매한 인격과 덕성을 의미하며, 학식인은 풍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념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하며, 특히 교양인으로서의 성품과 학식은 경건성 속에서 통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교육 목적은 덕성과 학식을 겸비한 신앙인의 배출을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었다.

이상의 논의는 얼핏 '어떤 시기에도 학교 교육에 대한 지배적인 단일 이념은 없었다'라는 앞서의 필자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기독교적 이념이 이후 비판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고 해석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Quaker를 비롯한 일부 소수 교파들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주장하고 구원의 예정설을 반박하며, 교육에서 위협보다는 사랑, 벌보다는 이해 등을 강조하였다. 또 B. Franklin은 고전어 교육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교육관을 비판하며, 지식의 장식적 가치뿐 아니라 실용적 가치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그는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체육 교육이나 표현력을 길러주는 그리기 교육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Butts & Cremin, 71, 78).

특히 Franklin은, 그의 비판적 입장이 반 기독교적이거나 무신론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경건성의 개념을 세속화하고 인간의 양심과 현실적 삶의 영위를 위한 기술을 강조하는 등, 공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교육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학식'의 초점 역시 장식적이고 고전적인 것에서 좀더 실용적이고 동시대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Cremin b, 302, 360). 그 증거의 하나는 자연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과학에 대한 중산 계급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결국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적 경건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특히 종파 선택의 자유 또는 종파의 분립이라는 미국적인 특수성에 의해 가속화되었다(Curti, 106).

이밖에도 교양인으로서의 성품에 관한 개념이 재해석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교양인이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 엘리트 계층에 국한된 것인데 반해,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교양인은 참정권을 가진 국민 모두를 포함하는 바, 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교양인의 성품을 갖추게 될 때 사회 전체가 유지된다는 것이다(Cremin b, 439).

물론 기독교적 이념에 대한 이상의 비판과 도전이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반작용은 다음의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것은 신 중심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고의 틀을 세속적이고 자연적(혹은 물리적)인 것으로 전환함을 뜻하는 바, 우리는 여기서 유럽의 인본주의적 전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색조까지 발견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도전과 비판은 유럽의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탈피하여 미국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경건성, 교양, 학식 등의 개념이 당시 미국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 재규정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이상의 반작용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이후의 공화정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3. 교육의 추이

식민지 시대 초기의 학교 교육은 주로 초등교육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회나 종교 집단에 의해 운영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Beale, 1). 따라서 식민 시기의 학교 교육의 목적과 방법은 상당한 정도로 종교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파 선택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병합되어 다음과 같은 추이를 낳았다. 첫째, 자유로운 교파 교육을 위한 사립 학교의 설립에 대한 요구의 증가이다. 둘째, 이에 따라 공립 학교가 점차로 약화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특정한 교파를 지지하는 주정부 교육 체제가 쇠퇴한다는 점이다(Butts & Cremin, 98).

이를 부연하자면, 식민 시기에 주 정부에 의해 공인된 학교는 그 주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특정 교파의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기관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교파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세력은 이러한 형태의 학교 교육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교파 교육을 위한 사립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종교적 성격을 띤 공립 교육은 차츰 쇠퇴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당시의 미국 사회가 국가 전체의 공통적인 가치나 규범보다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교육의 다양성을 더 중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 교육의 내용이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에서 종교 교육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곧 공통적인 교과과정을 갖춘 공립 학교 체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

한 주 정부 교육 체제의 쇠퇴 현상은 미국 사회가 어떤 구심점을 회복하게 되는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다음으로, 불평등한 경제 계급 구조에 의해 야기된 복선형 교육 제도를 들 수 있다. 라틴어 문법 학교나 대학은 상류 계급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의 지도층 양성을 통해 지배 계급의 기득권을 보장해 준 반면, 초등학교나 도제 제도는 하류 계급의 교육으로서 그들을 계급적으로 고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Butts & Cremin, 99).

이와 아울러 교육의 혜택을 받은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격차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은 그것이 비록 초등교육일지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일종의 특권이였다(MacMillan, 7).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 현상은 이후 상이한 이해 집단이나 사회 계층이 학교 교육의 통제와 장악을 위해 투쟁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특기할 만한 점은 이 시기의 일반적인 수업 형태이다. 초등 학교의 교과과정은 읽기, 쓰기, 셈하기 및 철자법이었는데, 수업 방법은 원시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식의 이해나 적용보다는 암기가 강조되었다. 상급 학교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과 내용은 회랍어, 라틴어, 수사학, 논리학, 윤리학 등이었으며 이들은 토론이나 질문 혹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학습'되어야 할 지식이었다. 그리고 교사의 임무란 단지 학생의 암송을 들으며 그것이 완벽한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실수를 지적해 주는 것이였다(Beale, 7). 즉, 교육의 방법은 권위주의적이고 비과학적이었으며, 학생에게는 일방적이고 피동적인 것이였다.

### Ⅲ. 독립에서 내전까지

#### 1. 사회적 상황

식민 시기를 미국의 태동기라 한다면 이 시기는 미국의 유아기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신체·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없듯이, 미국 역시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미국적인 독특함을 성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독립선언을 기점으로 약90년의 기간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반 형성에 매우 결정적인 시기였음은 분명하다.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소위 '미국 혁명'이라 불리는 독립 전쟁이다. 이 전쟁의 중요한 원인 두 가지는 영국의 통제에 대한 배척과 미국 내의 계급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이 전쟁의 주된 명분으로 널리 알려진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내부적인 것으로서 독립 전쟁 이후에 고양된 민주주의 의식과 평등 정신에 직결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Ibid., 33-4). 부연하자면, 독립 전쟁은 내부적으로 볼 때 식민 시기에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특권으로부터 소외된 계급이 그들의 정치적 힘을 규합하

여 기존의 정부와 교회를 전복한 사건이다. 전쟁의 결과로 이들은 새로운 정치 권력을 확보하게 되고 종전의 특권 계층과 지배 계급은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한 채 국외로 추방되기에 이른다.

이 시기의 특징을 정치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면, 이 시기는 전 시기에 싹뻗던 평등의 이념이 성숙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식민 시기에 있었던, 재산의 과다에 따른 참정권의 제한은 독립 선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 명시된 “자연권”과 평등의 원리에 고무된 대중은 동등한 투표권(universal suffrage)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으며, 새로 탄생한 정당 역시 좀더 많은 표의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원했다. 결국 1856년 North Carolina를 끝으로 백인 남자의 참정권에 대한 재산 제한이 철폐되었으니, 이는 평등 이념의 부분적 구현이라 볼 수 있다(Butts & Cremin, 144).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시 미국은 공업화된 북부를 중심으로 산업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물론 본격적인 산업화는 내전 이후에 일어나지만, 이 시기에 벌써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산업 자본주의 성립의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예컨대, 영국에서 유입된 기술과 공학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증기 기선을 비롯한 교통 수단의 발달, 철도와 전보를 이용한 통신 수단의 발명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괄목할 만한 현상은 노동 단체들의 조직과 성장이다. 이는 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진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여기에 지식인·문인·사회 개혁가 등이 합세하여 평등 교육, 병역 제도 개선, 독점 방지, 세계 개혁 등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과 복지 증진을 그 주된 목표로 삼았다(Ibid., 148-51).

끝으로 지적할 것은 농업 생산에 의존하던 남부가 타지역으로부터 이질화되어 갔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타지역과 상이한 경제 구조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결국 내전의 중요한 원인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남북 전쟁은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노예 제도를 둘러싼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남부와 북부의 상이한 경제 체제 및 구조에서 기인한 이해관계상의 충돌이었다. 남부는 엄격한 신분 차별을 토대로 소수의 대농장주가 다수의 흑인과 백인 영세농들을 지배하는 귀족주의적 농업 사회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예는 사유 재산의 일부이자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다. 반면, 낫날이 산업화 되어가는 북부에서는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그 해결책의 하나가 남부 흑인들의 유인이었다. 이렇게 볼 때 노예 해방은 북부 자본가에게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 수단이었고 남부 귀족에게는 경제적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무력 충돌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Beale, 111)

내전의 결과가 미국의 지적 문화적 생활에는 그리 큰 영향을 안겼으나 정치적인 영역에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인들은 내전 이후 국가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 2. 배경 이념

이 시기의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이념은 민주주의, 국가주의(nationalism: 미국이 민족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족주의라는 번역은 적절치 않다고 봄), 계몽 사상 그리고 과학의 발달과 병행한 실용적인 지식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의 민주주의 이념은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자연권 사상의 실천적 해석으로서 일체의 학정에 대한 저항과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권리,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을 의미한다. 둘째는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데, 이로써 주 정부가 관리하는 공립 학교 교육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앞절에서 교과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종교 세력이 공립 학교 제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지적 민주주의, 즉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지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동시에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받은 대중이 사회를 운영할 때 비로소 공화정의 성공적인 유지가 보장되며 독립 전쟁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Curti, 134-6). 결국 이 시기의 민주주의 이념은 만인을 위한 공립 교육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의 국가주의(국가 지상주의와는 다름)는 국가 공동체 의식이나 국민 연대보다는 문화적 국가주의, 즉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미국의 정체성을 뜻한다. 이 무렵부터 유럽 문화의 수입과 모방에서 벗어나 미국적인 것을 모색하게 되는데, 미국 문화사에서 큰 의의를 갖는 1780년 미국 학술원(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의 개원은 그러한 흐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Ibid., 143, 145).

셋째로, 계몽주의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상 사악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이성을 갖춘 완성 가능한 존재이다. 이같은 관점에 따르면, 문명의 척도는 결국 인간의 진보 정도인 바, 여기서 인간이란 이성을 갖춘 보통 사람(common man)을 의미한다. 이 견해는 과거 계급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지는 불평등한 체제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교육이 제공될 것을 요구하는 바, 이 또한 민주주의 이념과 더불어 공립 교육을 설립·확산시키는 초석을 마련하였다(Butts & Cremin, 167).

이와 아울러 인간의 정신 세계나 지력(intelligence)에 대한 과학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개념의 등장도 들 수 있다. 이같은 개념의 주장자들은 인간의 사고나 지성을 초자연적인 영혼의 작용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인체의 종합적인 기능으로 파악한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지력 계발에서 교육이나 습관 형성 등이 중요하다. 이는 곧 환경 조성인 바, 지적 능력의 개인차나 인종간 혹은 성별간의 격차는 바로 이러한 환경이나 문화의 차이로 설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Ibid., 176-7).

요컨대, 인간의 지적 능력의 우열이나 성품의 선악 등은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환경

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인간은 누구나 진보의 가능성을 소유하는 존재로서 교육적 혹은 문화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환경이 부여될 때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Curti, 165, 171). 즉, 계몽주의적 인간관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의 발전을 가능케 하고 인간의 발전은 곧 사회 전체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한편, 지식의 가치 및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주목할 만하다. 종래의 지식의 가치가 교양을 위한 장식적 측면에 있었던 반면, 새로운 지식관은 지식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지식 교육이 사회 발전과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지식인의 역할은 귀족적인 품위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완수에 있는 것이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지식관은 교육 내용을 보다 기능적으로 재편성하려는 노력에도 반영된다. 교육자들은 실용적 지식 교육을 “현금 가치(cash value)”로 설명하려 한다. 즉,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실용적 지식의 획득은 노동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실용적인 지식 교육이 곧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Butts & Cremin, 213-4). 한 마디로, 지식 혹은 과학의 기능은 자연을 통제하고 인류의 안녕을 향상시키며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교육의 4가지 배경 이념은 이 시기를 주도한 교육철학이었기보다는 진보적이고 선구자적인 대안이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같은 진보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반작용에 직면한다(Curti, 189-204). 우선 인간의 능력이나 성품은 천부적으로 다르게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차는 환경적 처치에 의해 치유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민주주의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이념인 셈이다. 이같은 주장은 개인차뿐만 아니라 성별간, 인종간의 차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으로, 진보적 이념의 종교적 불경성(infidelity)을 공격하고 무신론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다. 끝으로 과학의 잠재력에 대한 경시 현상이다. 특히 과학의 운용이 기존의 질서나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도전할 때 이러한 현상은 심화된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계속되었다. 왜냐하면 보수적 반작용은 소수 기득권 계층의 목소리였던 반면 진보적 이념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 3. 교육의 추이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의 가장 의미 있는 업적은 보편적 공립 초등교육 체제의 정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편적이라 함은 교육 내용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교육 체도의 수립 및 확산은 곧 평등 이념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개인적 측면에서 권리의 신장이라는 의미를 가짐은 물론,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공민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미국의 공립 초등교육은 공화정 유지를 위



한 보편적 교육, 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한 교육, 미국인으로서의 국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는 4가지 교육 이념의 구현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Cremin a, 29-48).

이러한 보편적 초등교육 제도의 완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며, 이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 시기의 중요한 교육적 추이였다. 물론 여기에는 큰 반대가 있었다. 우선 유산층의 경제적 이기주의였다. '남의 자식을 공부시키는 데 내 돈을 낼 수는 없다'는 식이었다. 다음으로 무상교육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빈민층만을 위한 제한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교육자들은 참된 평등교육의 구현을 위한 무상교육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1850년 평등성, 보편성, 무상의 원칙에 입각한 최초의 공립 초등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Butts & Cremin, 203-4).

한편, 이러한 교육자 중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든다면 Horace Mann으로, 그는 보편적 초등교육 혹은 공립 초등교육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그는 무상 공립 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 우수한 교사 유치, 학교 시설과 위생 상태의 개선, 통일된 교재 채택 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다(Dexter, 100-1).

이 시기의 교육 현상 중 한 가지 더 팔목할 만한 점은, 초등교육에 대한 요구와 아울러 중등교육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남북전쟁을 전후해서 중등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 정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었다는 것이다(Butts & Cremin, 263). 즉, 중등교육 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하여 과거에는 소수를 위한 대학 입학 준비 기관이었던 중등 학교의 성격을 다수를 위한 최종 학교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 마디로 소수를 위한 엘리트 교육에서 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대량 교육(mass education)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민주적 추이와는 달리,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은 그 방법이나 원리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이성과 지력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통틀어 인간의 정신적 발달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은 소위 능력심리학(faculty psychology)이었다(Ibid., 177-8). 이 이론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크게 세 가지 영역(지적, 감성적, 의지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지적 능력의 발달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적 근육이 마치 운동에 의해 단련되듯이 인간의 정신 역시 정신적 운동에 의해 연마되는 것이다. 지적 능력의 연마에 가장 효과적인 교과로 이들은 고전, 수학, 그리고 철학을 든다. 능력심리학은 19세기 말 Thorndike의 과학적 검증에 의해 그 타당성이 부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제공하는 틀이 되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심신이원론에 기초한 능력심리학에 내포된 교육의 방법은 전 시기에

서와 마찬가지로 단련(discipline)이고, 교육 내용은 바로 고전에 치중된 것인 바, 이는 타율적 통제에 의한 방법을 의미하며 지식의 실용성에 대한 부정이었던 셈이다.

끝으로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의 주요 목적은 학교 교육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음의 6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Ibid., 267-9). 첫째, 학교 교육 체제의 지배적인 목적은 인격과 도덕성 발달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서 인격과 도덕성의 발달이란 곧 기독교의 교리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865년 이전까지의 학교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능력심리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신단련이라는 관점이다. 즉, 지식의 획득은 교육의 부차적 기능이며, 지식 교육의 원래의 의미는 지력의 훈련에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수학 교육의 경우, 수학적 지식의 실제적 응용이나 수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보다는 수학 연습을 통해 논리적인 추리력을 연마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이다.

셋째로, 학교 교육, 특히 초등교육의 목적을 문맹퇴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전통 개신교 집단은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인 성경 독해가 문맹의 퇴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 이 견해를 지지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서서는 투표권자들에 대한 문맹퇴치가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킨다는 이유에서 이 견해에 찬동하였다.

넷째로, 학교 교육의 목적을 충직한 시민 양성으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특히 보편적 초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론이었으며, 이로 인해 교과과정 안에 사회과가 대거 포함되었고, 미국화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이는 다양한 인종, 문화집단으로부터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다섯째로, 학교 교육의 목적을 개인적 성공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같은 견해에 따르면, 학교 교육은 특정한 지위의 획득이나 사회적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할보다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시기는 비록 학교 교육이 단련과 고전 교과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양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평등의 기치 하에 교육의 기회가 확산되고 교과과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는, 즉 이후의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 IV. 내전에서 1차 세계대전까지

##### 1. 사회적 상황

이 시기는 경제와 인구, 그리고 영토의 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팽창을 경험하는 시기이

다. 이 시기에 미국은 본격적인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 돌입하였다. 막대한 양의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번창하고, 대기업의 수가 증가하며, 도시가 번성하는 등 산업사회의 특징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 시기를 통해 많은 이민들이 유입되어, 1860년에 불과 3천만이었던 미국 인구가 1920년에는 1억으로 증가하였다. 미서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가주의적 정서가 강해지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도시의 발달로 인한 사회 문제, 여성의 투표권, 유색 인종의 인권 문제 등이 대두되고, 기독교 내의 비개신교 세력이 성장하던 시기였다. 위와 같은 급변의 상황은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으로의 전환, 즉 “미국적 사고의 재조형”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다(Ibid., 293).

## 2. 배경 이념

이 시기를 통해 교육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이념이나 견해로 Darwin의 진화론에 입각한 인간관과 사회관, 학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관, 실용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Darwin의 진화론에 입각한 인간관과 사회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1859년에 발표된 <종의 기원>은 서구의 지적 세계에 충격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초자연주의 혹은 영혼주의로 대표되는 기독교적 지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진화론의 중요한 개념은 인간도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종족의 생존은 환경에의 적응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종래의 관념론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변화라는 개념이 진화론에 의하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Ibid., 324).

이러한 진화론의 영향은 곧 생물학적 인간관으로 발전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의 정신적 발달이나 신체적 발달은 모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의 정신을 하나의 실체로보다는 과정으로, 그리고 영적 능력으로보다는 유기체의 적응 기능으로 본다. 또한 이 입장은 인식론적 실재론을 수용하는데, 이는 자연과학의 대상은 인간의 인식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물리적 객체들이라는 주장을 의미한다. 끝으로 생물학적 인간관은 학습을 자극과 반응간의 연결로 보고, 능력심리학을 부정하는 과학적 학습이론을 수용한다(Ibid., 333-8).

Darwinism에 입각한 사회관은 위에서 언급한 생물학적 인간관보다 강하고 심도 있게 교육의 이념과 목적에 영향을 끼친다. Darwinism에 기초해서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설명하는 입장은 보수적인 것과 개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Cremin c, 92-9). 전자에 의하면 사회의 진보는 생물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아주 완만하게 이루어지며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속진 될 수 없다. 그러나 후자는 교육을 통한 사회의 진보를 강조한다. 즉, 교육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문명의 발달과 사회의 향상을 가져다 주

는 제도라는 것이다.

개혁적 Darwinism은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교육관과 직결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학교는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 전체를 개선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다(Dewey, 24). 따라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교육은 존재할 가치도 없으며 교육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는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미국의 상황에 아주 적합한 것이었다. 아직 고착된 제도나 확립된 사회 질서가 없이 부단히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던 미국 사회가 이러한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음으로, 실용주의에 관해 살펴보자. 간단히 말해서 실용주의란 지식이나 가치의 기준을 절대적이고 영구불변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현실에 적용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Curti, 566). 이에 따르면, 어떤 주장이나 신념은 특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이며, 가설의 타당성은 검증의 과정을 거쳐 평가된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잠정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는 새로이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부단히 반복된다. 실용주의가 갖는 교육적 의미는 과학적 실험 정신을 존중한다는 점에 있다. 교육의 목적은 불변하는 지식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실험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습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영적인 인간관에 의해 반박된다. 영적인 인간관을 전제하는 입장은 무수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세계를 격하시킨다. 이러한 입장은 초자연주의적 기독교의 입장, 관념론적 입장, 그리고 고전적 인문주의 등에 의해 대변된다. 이들은 영구불변하는 진리가 영적 혹은 관념의 세계에 있다고 믿으며, 교육은 인간의 영적 능력을 고전 교과를 통해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 확산되고 있던 진보적 입장에 대한 보수적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3. 교육의 추이

이 시기의 교육의 새로운 추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첫째가 학습과정에 대한 과학적 탐구이고, 둘째가 아동중심 교육 사조이며, 셋째가 교육의 진보적 목적관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과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인간의 학습 심리에 대한 연구가 이 시기에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이는 피동적인 수용자라는 학습자의 개념을 부정하고 학습의 과정을 개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의 지적 능력은 영적 실체로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자

극에 대해 유기체가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인 바, 이는 종래의 능력심리학이 주장해 온 특정한 능력의 단련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Butts & Cremin, 338).

둘째로, 종전의 전통적인 교육관, 즉 주입과 훈련을 중시하고 교육의 내용을 성인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권위주의적인 교육 원리를 배격하고, 아동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교육의 과정에서 그들의 흥미나 관심을 중시하는 아동중심 교육 사조의 확산이 이 시기의 의미 있는 교육적 추이라 할 수 있다. 이 흐름에 따르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에게 무엇을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으며, 따라서 아동은 교육이라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이고 교사는 아동 스스로의 성장을 이끌어 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Ibid., 382).

이와 아울러 Dewey의 실험주의에 입각하여 새로운 교육의 방법과 원리를 모색하려는 진보적 교육관을 들 수 있다. 이 입장은 아동들의 능력이나 요구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책임과 권리 의식을 가지고 민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연하자면, 진보적 교육관은 종래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에게 자기 표현, 활동, 유희, 협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 사회, 즉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Ibid., 434).

물론 이상의 세 가지 추이, 즉 학습이론의 과학화, 아동중심 교육 사상, 그리고 진보적 교육관이 이 시기의 지배적 세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북전쟁까지의 시기가 구 세계의 전통적인 교육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기였다면, 이 시기는 그러한 대안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때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시기에 들어 자본가들이 학교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산업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생산 인력의 훈련을 목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자본가들의 투자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자본가들의 이러한 태도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미래 직업을 위한 준비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바, 부분적으로는 당시의 교육개혁가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장차 계급 구조의 영속화라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Carnoy, 247).

## V. 논의 및 결론

앞서도 말한 바 있듯이, 지난 시기에 미국의 학교 교육은 그 목적이나 이념, 방법, 내

용 등에서 서로 대립, 갈등하는 상이한 입장이나 세력간의 투쟁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잡다한 이념들의 균용할거라든지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되어 온 우리의 교육과 비교할 때 미국의 교육이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은 다소 이질적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논의된 갈등의 형태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독교적 초자연주의 대 과학적 자연주의의 대립을 들 수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는 쇠퇴의 길을 걸은 반면 후자는 점차 그 입지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교 분리 및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최소한 1차 대전까지의 시기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평등의 이념과 엘리트주의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전자의 득세로 결말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 즉, 평등의 내용을 교육받을 권리로 보느냐, 교육의 기회로 보느냐, 교육의 조건으로 보느냐, 또는 교육의 결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어도 앞의 두 가지(권리와 기회)로 이해할 때, 평등의 이념은 점차로 확대일로를 걷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권위주의적인 전통 교육과 아동중심 교육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사회 전체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추세에 상응하여, 비록 이론에 비해 교육 현장의 변화가 늦기는 했지만, 후자 쪽이 점차 대세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장식적 지식관과 실용적 지식관 사이의 갈등이다. 이 역시 산업화의 진전과 실용주의 철학의 영향으로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통일성 대 다양성의 문제이다. 사실 1차 대전까지의 미국 사회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문화적 요소들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다원적 사회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자가 더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시기의 미국의 학교 교육은 유럽의 사조나 학문의 영향을 토대로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독특한 이념이나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정립해 가기 시작했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식민시기부터 1차 세계대전에 걸치는 미국의 학교교육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견해나 세력 간의 투쟁의 장(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독교적 초자연주의와 과학적 자연주의, 장식적 지식관과 실용적 지식관, 평등의 이념과 엘리트주의, 공립교육과 사립교육, 권위주의적 전통 교육과 아동중심 교육 등의 대결을 통해 한 이념이 다른 이념의 제압을 시도하는 과정을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대립의 구도를 보수와 진보의 양분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유럽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의 양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위 진보의 극(極)에 속하는 이념이나 견

해가 상당한 정도 유럽의 이론이나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이러한 영향을 토대로 미국적인 것을 짝 띄우는 시기였다. 이 짝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Beale, H.K. *A History of Freedom of Teaching in American Schools* (N.Y.: Octagon Books), 1974
- Butts, R.F. & Cremin, L.A. *A History of Education in American Culture* (N.Y.: Henry Holt and Company), 1953
- Carnoy, M. *Education as Cultural Imperialism* (N.Y.: David McKay Company Inc.), 1974
- Cremin, L.A. a, *The American Common School* (N.Y.: Colombia Univ.), 1951  
 \_\_\_\_\_ b, *American Education* (N.Y.: Harper & Row, Publishers), 1970  
 \_\_\_\_\_ c, *The Transformation of the School* (N.Y.: Vintage Books), 1964
- Curti, M. *The Growth of American Thought* (N.Y.: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1
-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N.Y.: MacMillan Co.), 1952
- Dexter, E.G. *A History of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N.Y.: Burt Franklin), 1971